

2023-12-04

(2022.01.10=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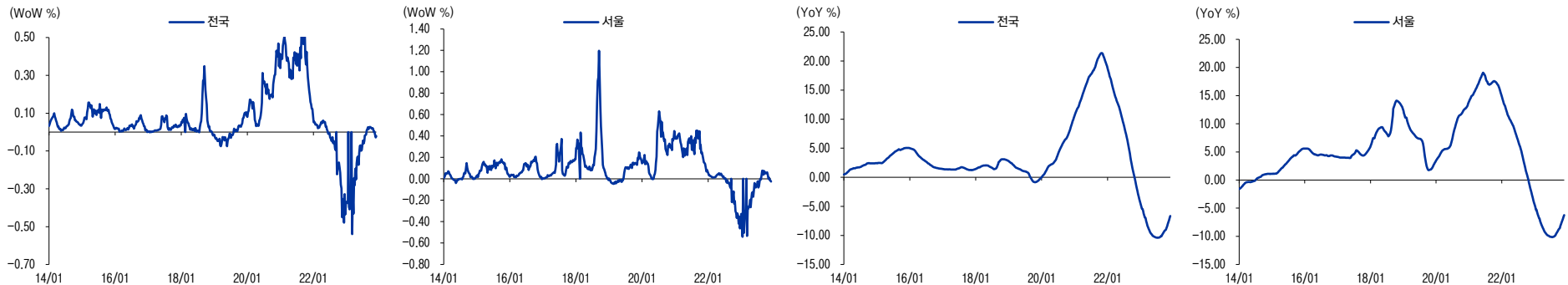
건설·건자재 김세련 / 02-3779-8634 / sally.kim@ebestsec.co.kr

항목	일자 (마지막 update)	Data	Chg Net (YoY)	Performance (%)							
				1D	1W	2W	1M	3M	6M	1Y	연초이후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국 (2022.01.10=100.0)	2023-12-01	90.1	-7.2	n/a	-0.0	-0.1	-0.1	0.1	-0.4	-7.4	-5.6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	2023-12-01	90.8	-6.8	n/a	-0.0	-0.0	-0.0	0.3	0.1	-6.9	-5.1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부산	2023-12-01	90.0	-8.2	n/a	-0.1	-0.1	-0.3	-0.7	-1.7	-8.4	-6.6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5대광역시	2023-12-01	89.2	-7.7	n/a	-0.0	-0.1	-0.2	-0.3	-1.2	-7.9	-6.2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국 (2022.01.10=100.0)	2023-12-01	88.3	-8.7	n/a	0.0	0.1	0.2	0.8	0.3	-9.0	-6.2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서울	2023-12-01	86.1	-9.9	n/a	0.1	0.2	0.5	1.7	1.6	-10.3	-6.3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부산	2023-12-01	89.0	-9.4	n/a	-0.0	-0.1	-0.2	-0.5	-1.5	-9.5	-7.0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5대광역시	2023-12-01	87.7	-9.1	n/a	-0.0	-0.0	-0.0	-0.1	-1.3	-9.4	-7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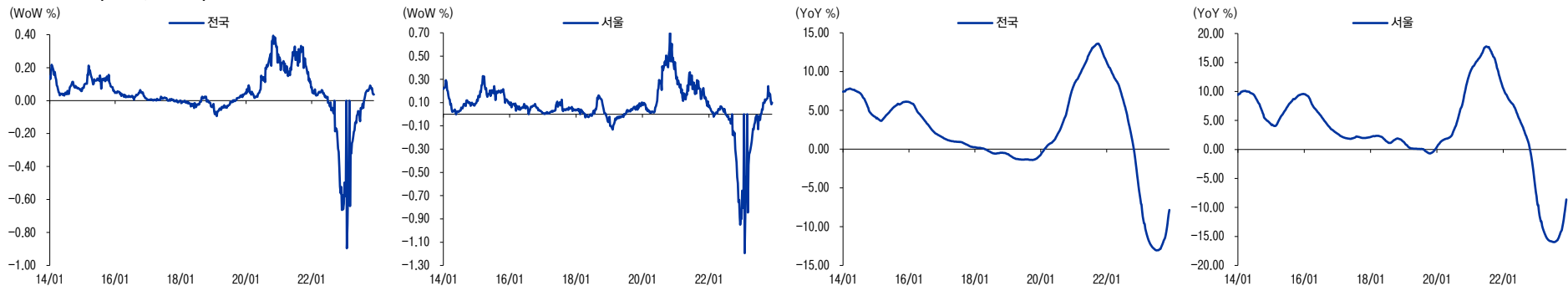
주: KB부동산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이번주 Comment	지난주 주요 News Flow
<p>-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.1로 -5.6% YTD, 0% WoW 증감함</p> <p>-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.8로 -5.1% YTD, 0% WoW 증감함</p> <p>-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88.3로 -6.2% YTD, 0% WoW 증감함</p> <p>-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86.1로 -6.3% YTD, 0.1% WoW 증감함</p> <p>-업종지수는 코스피 건설업이 -0.5% WoW, 코스닥 건설업이 -0.7% WoW 증감함</p> <p>-부동산 경기 둔화로 프롭테크 업체들 구조조정 본격화</p> <p>-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는 통과되었으나, 실거주 의무 폐지는 보류되며 혼조</p> <p>-10월 성수기에도 불구하고, 매매거래량 35,454세대로 MoM 5.8% 감소하며 리스크 부각</p>	<p>-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... 거래 지지부진하자 집주인 호가 낮춰(23/12/01, 스마트투데이)</p> <p>https://rb.gy/k2r1d5</p> <p>-10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제자리걸음... 연내 분위기 반전도 쉽지 않다(23/12/01, 한국금융)</p> <p>https://rb.gy/boosqg</p> <p>-중 "지방부채 40조위안 넘어"... LGFV 합치면 천문학적 액수 관측(23/12/01, 연합뉴스)</p> <p>https://bit.ly/46Uf1ZT</p> <p>-건설사 10곳 중 4곳 '잠재적 부실'... "내년 부실 본격화 우려"(23/11/29, 주간조선)</p> <p>https://bit.ly/3uLqhtQ</p>

아파트 매매 (WoW, YoY %)



아파트 전세 (WoW, YoY %)

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(작성자: 김세련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